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9월 11일 수요일(주간) 제386호

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법석 초대 **보봉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만하는 범음이 지극하면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삼아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지구를 정토로" 국제연대 활발

INEB총회(내년 7월) 사키야디타대회(2004년) 청년포럼(내년 12월) 한국서

정토회 재가연대 우리는선우 진각종 등 10단체

아프간난민 어린이 영양·교육지원

인도 3곳에 불교공원·학교·법당

네팔·미얀마 등 연10억 상당 물품

불교적 가치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 및 실천 체계인 '참여불교(Engaged Buddhism)'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불교NGO들이 아시아 지역의 구호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참여불교대회를 잇달아 유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국제참여불교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내 참여불교운동의 선두주자는 정토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지난 98년 창립돼 인도 빈곤지역인 비하르주 지원사업을 비롯해 북한 식량지원과 농업지원, 생필품지원 등 제3세계의 빈민지원활동을 펼쳐온 정토회는 최근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분쟁지역 난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토회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바미안 근교 등 3~4곳의 난민촌에 어린이 영양공급 및 교육지원 등 난민 정착지원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16일부터 7박8일간 현지 답사를 실시한다.

달라이라마 방한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우리는선우와 공동으로 오는 15일경부터 제1차 인도불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석가족들이 밀집해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 우따 쁘라데시(Uttar Pradesh) 주를 비롯한 비하르(Bihar) 주 3곳에 불교공원과 학교, 마을법당 등의 시설 건립(2만불) 및 식량지원(2만불), 불교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재가연대는 최근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창영 코리아타임즈 논설위원)'를 신설, 국제참여불교운동 네트워킹, 참여불교지도자와의 만남, 해외 재가불자 네트워킹, 해외불교 지원, 종교간 평화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불교대회의 국내 유치 등 참여불교 국제연대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토회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경불련 등 불교NGO들과 함께 내년 7월 한국에서 참여불교도국제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의 한국 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33개국에서 400여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불교 조직인 INEB는 대안교육, 비폭력운동, 인권 환경 여성 대안적 사회발전 및 인간의 심성교화와 자비행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전국비구니회는 2004년 사키야디타 제8차 국제여성불교도 대회를, WFBY한국지부는 내년 12월 세계불교도청년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한다.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인 진월스님도 서울을 2005년 종교연합세계총회(URI Global Assembly)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다.

한편 불교국가를 돕거나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도 늘어나 진각종 JGO, 이웃을돕는사람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한국불교방글라데시친선협회 등 10여 개 단체들은 인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등 불교국가에 매년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조계사의 후원프로그램 도입

4일 오후 조계사 종무실. 한신도가 '대웅전 보수불사 후원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종무원으로부터 몇 마디 설명을 듣고 나서는 "편리하네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종무원은 최근 대웅전 보수불사를 앞두고 불사금을 모금하기 위해 도입한 후원 프로그램이 신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가 도입한 이 후원 프로그램은 '넷페이(NETPAY)'라는 것이다. '넷페이'는 불자들이 후원 신청서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후원약정금을 기입해 제출하면, 매월 약정한 후원금이 전화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청구되는 방식으로, '위컴(wecomm)'이라는 후원프로그램 업체에서 최근 개발한 것이다.

이 방식은 지정된 번호(700서비스)로 전화를 해야만 후원금이 납입되는 ARS 방식과는 달리, 매월 약정한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훨씬 효과가 높다고 위컴 측은 설명한다. 조계사도 간편한 방식에, 매월 일정액을 부담없이 후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복지시설이나 시민운동단체, 사찰 등 불교계의 수많은 단체들이 불자들의 후원(보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자동이체나 무통장 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면서도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불만만 늘어놓기 일쑤다.

위컴의 이명덕 사장은, 현재 위컴이 제공하고 있는 AR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250여 단체 가운데 기독교계는 60여 곳이 넘는 반면, 불교계 단체는 4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불교계의 월 평균 후원 건수도 기독교계와 비교해 20~30% 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원문화가 발달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불교계는 아직까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후원자들이 불편이나 부담을 느낀다면 후원은 오래가지 못한다. 모금함을 돌리거나 무통장 입금과 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후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조계사의 '넷페이' 도입은 새로운 방식으로 후원문화를 정착시켜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 할만하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스님들도 구호 동참 3일 김천 직지사 스님들이 식수차를 마련, 직지천 범람으로 수재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수를 나눠주고 있다. 김천=박원구 기자

주요종단·각사찰·종립학교 등 수재민돕기 대대적 모금활동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가 구호활동 및 성금모금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조계종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고, 수재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 종단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6일 현재 6,800만원을 모금한 조계종은 9일 강릉에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냈다.

또 태고종도 4일 종무회의에서 9월30일까지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전국 종무원과 2,600여 말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태고종은 4일 1차로 의료 30박스를 수해지역에 전달했다.

천태종은 4일 각 말사에 공문을 보내 사찰별로 각 지역 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할 것과 그 결과를 총무원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천태종은 8일 강원, 경남, 경북지역에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수해현장에 파견했다.

진각종은 최근 서울, 대구 등 6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에서도 수재민 돕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은 4일 삼척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 생필품을 전달하고 구호에 동참했다.

사찰차원의 성금모금 및 수재민 지원도 늘고 있다.

조계사는 '수재민 돕기 1인 1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정사는 14일 오전 10시 원주 법흥사에서 수재민돕기 특별대법회 및 일일 찻집을 개최한다.

직지사는 8일부터 김천지역에 자원봉사자 40여명, 정토회는 3일 강릉에 40여명의 긴급구호단을 파견했으며, 한마음선원 대구지원도 5톤트럭 1대 분량의 부식과 생필품을 강릉지역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11면

한편 교계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수재민 자녀 300여명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위덕대도 5천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수재 성금 모금 접수처

조계종 총무원 (02)735-5864
태고종 총무원 (02)745-2030
천태종 총무원 (043)420-7314
진각종 통리원 (02)913-0753
불교방송 (02)705-5223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달력

1. 불자님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교달력을 사용하십니까?
   ①사용한다 ②사용하지 않는다
2. 불교달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사진(그림)이 좋아서 ②음력을 보려고
   ③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서
   ④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설문 참여: 9월 1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7호 9면에 싣습니다.

"법당내 납골함 설치는 정당

광주지법, 구청의 설치신고 거부는 위법"

건축허가가 없어도 사찰법당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부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5일 광주 문빈정사(주지 석장)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종교집회장인 사찰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구독신청 (02)737-0090

200여 사설사암 대상 조계종, 등록촉구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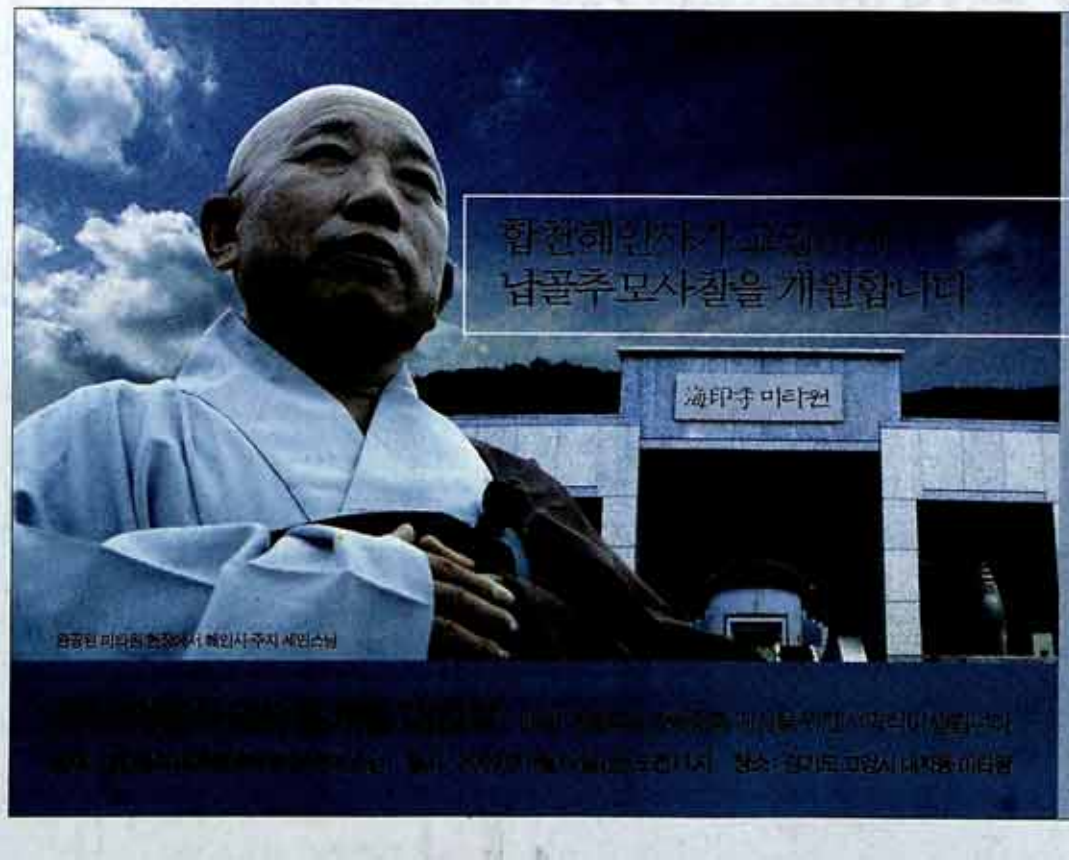
조계종은 소속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2백여개 사설사암에 대해 등록촉구 공문을 8월 30일 발송했다.

조계종 공문에서 "사설사암은 종헌 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종단에 재산을 등록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2일부터 19일까지 등록을 받고, 이후 미등록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23일부터 30일까지 방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제주불교성지순례
TEL 064)724-1185~6



해인사 미타원, 대림산업이 만들었습니다
합천 해인사가 운영합니다

묘지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잘못된 장례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대림산업과 합천 해인사가 이름을 걸었습니다.
대림산업이 만들어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납골추모사찰, 해인사 미타원-
이 땅의 장례문화를 바로세우겠습니다.

왕족들이 고른 명당 중의 명당, 경기도 대자산 위치
경기도 대자산은 성형 대군, 희영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전국의 명당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명당입니다.

상담문의
(031)963-7588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海印寺 미타원
www.mitawon.or.kr
시행 : 해인사미타원 시공 : 대림산업